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 AI인재 해외유출 막는다

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대책 발표
중 석학 최고 예우 ‘원사’ 벤치마킹
5년간 100명 뽑아 年 1억 등 지원
AI 분야 등 해외 연구자 2000명 유치
李 “과학 문명 투자한 국가는 흥해”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 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석학들에게 부여하는 예우인 ‘원사(院士)’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총 100명을 뽑아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이 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를 열고 국가과학자 선발 등의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자는 세계적 연구 업적을 가진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이직 없이 한국 안에서 연구를 이어 갈 수 있게 신설됐다. 5년 동안 2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1년에 1억 원씩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들에게 공항을 이용

할 때 편의를 봐주고, 국가 연구 프로젝트 기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해외 연구자 2000명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연구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또 국내 AI 인재 육성을 위해선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중국이 원사급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다 ‘정년 해제’(정년 이후에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파격적 혜택이 없어 이공계 인재 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에서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je@donga.com · 윤다빈 기자

▶3면에 관련기사

울산발전소 붕괴 사고 사망자 3명으로 늘어

매몰 2명 사망 추정, 2명은 위치 불명
골든타임 72시간, 야간 수색 난항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가 7일 3명으로 늘었다. 사망 추정 상태로 매몰된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2명은 여전히 매몰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2차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매몰자 가족들은 기적적인 생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9시 6분경 60대 남성이 구조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5분경에는 50대 남성이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전날 붕괴된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서 팔 부위가 끼인 채 의식이 있는 채로 발견됐던 40대 남성은 밤샘 구조 작업에도 이날 오전 4시 53분경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작업자 9명 중 2명만 사고 초기에 구조되고 3명은 사망했다.

남은 매몰자 4명 가운데 2명은 사망 추정 상태로 매몰 지점에서 발견돼 구조 중이다. 소방 당국은 현재까지 매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2명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 내에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잔해물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구조 활동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철근 등 구조물 잔해와 석면 등이 겹겹이 쌓여 있어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잔해를 헤쳐가며 수색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거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점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경찰관 70여 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철거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도영진 Ojin2@donga.com · 최창환 기자

▶2면에 관련기사



구조대원 손으로 잔해 헤쳐가며 수색 7일 오전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내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내린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이날 오전 매몰돼 있다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를 이송하고 있다. 전날 오후 벌어진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이던 9명 중 3명이 숨졌고, 2명은 사망 추정 상태로 매몰된 채 발견돼 구조가 이어졌다. 2명은 현재 매몰된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다. 중상을 입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이재용 ‘뉴 삼성’ 시동

사업지원TF, 상설 조직인 ‘실’로 승격
정현호 부회장→박학규 사장 세대교체

삼성전자가 8년 동안 지속된 비상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고 ‘뉴 삼성’에 시동을 걸었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앞으로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추고 ‘초격차’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7일 임시 조직이었던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바꾸고, 첫 실장에 박학규 사장을 임명했다. 기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이던 정현호 부회장은 회장 보좌역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회장 보좌역은 사실상 명예직

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7년 이후 이 회장을 보좌해 온 정 부회장이 2선으로 물러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사업지원TF가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이 됐다. 사업지원실은 전략팀, 경영진단팀, 파플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전략팀장은 최윤희 경영진단실장(사장)이 맡게 됐다. 박 사장과 최 사장 모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거쳤다. 이 밖에 주창훈 부사장이 경영진단팀장, 문희동 부사장이 파플팀장에 각각 선임됐다.

이번 인사에 대해 취임 3주년을 맞은 이 회장의 향후 삼성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지원TF 중심의 ‘임시 체제’를 끝내고 조직 안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삼성 사장단 인사 및 조직 개편 폭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5면에 관련기사

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관세 이어 원잠 진통

〈원자력 잠수함〉

美 일부 부처 발표문 문구에 제동
대통령실 “선제-원자로 韓 건조해야”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내 일부 부처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팩트시트

발표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관세에 이어 안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가)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당초 한미는 4일 팩트시트를 발표하려 했으나 미국에서 관계 기관의 이견 등 의견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잠과 원자력 협정 문제 등

을 두고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부 등 일부 기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원잠을 승인한 데 대해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잠 선제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핀으로 거론한 데 대해선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윤다빈 기자

▶4면에 관련기사

마시는 알부민 골드 신제품 출시기념

70% 초특가 판매 실시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필수조건! - 알부민(Albumin)!

· 기력이 쇠하십니까? · 늘 피곤 하십니까?

알부민 부족 아닐까요?!

로열티 빼고 모델료 빼고 과대포장비 빼고 품질과 가격에 집중하였습니다!

3개월분(9박스X90포) +98,000원 59,900원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가능〉

6개월분(18박스) 119,800원 구입시 1만원 할인해드립니다!

· 피로한 간과 신장에 꼭 필요한 알부민과 한미양행 단독원료 함유! · 농촌진흥청에서 검증한 양질의 단백질을 사용한 발명특허(10-2076459)원료 함유!

마시는 알부민 골드

Albumin Gold

기술제공 : 자연과학연구소

1박스(20g X 10포)

마시는 알부민 골드

Albumin Gold

기술제공 : 자연과학연구소

1박스(20g X 10포)

마시는 알부민 골드

Albumin Gold

기술제공 : 자연과학연구소

1박스(20g X 10포)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3억가입

www.더드림24.com

문의 1800-6639

입금계좌<농협>317-0027-7491-11 (주)더드림홈쇼핑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가능〉〈택배비 4,000원 소비자 부담〉